

Date: 10 Sivan 5786 (May 26, 2026)

Torah Portion: Nasso

Topic: 생각이라는 신성한 신뢰

성경에 기록되기를 (민수기 5장 6절), “남자나 여자가 사람이 범할 만한 죄를 지어 여호와께 범법하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문구는 다소 특이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만 서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대신, 미드라시(Midrash)가 이해하기로는—단순한 외적 행위를 넘어—의도와 내면의 계획이라는 숨겨진 영역까지 아우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인들은 여기서 하나의 심오한 원칙을 도출해 냅니다. 즉, 죄의 타락은 그 행위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미드라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려 계획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편재하시는 여호와 엘로힘 (무소부재 Omnipresent)께 배신을 저지른 자와 같이 여겨진다.” 이는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다. 탈무드(Talmud)에서는 여호와께서 악한 생각을—마치 이미 실행된 행위인 양—평소에는 죄로 간주하지 않으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드라시는 어찌하여 단순한 의도에 대하여 그토록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비 아하론 레빈(R' Aharon Levin)은 이 난점을 정교하게 해명해 줍니다. 미드라시가 말하려는 바는, 그 사람이 실제로 죄를 실행에 옮긴 것처럼 간주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드라시는 그가 “메일라(מַעֲלָה me'ilah), 즉, 여호와께 대한 배신이나 신성 모독 행위를 저지른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속으로 구상했던 행위가 결코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악한 생각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뚜렷한 영적 타락이 된다는 뜻입니다.

토라에서 ‘메일라’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신성한 대상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성전에 봉헌된 물건은 신성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건을 가져다가 세속적이거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물건에 깃들여 있는 거룩함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미드라시적 이해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정신) 그 자체가 바로 그러한 신성한 그릇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단지 계산이나 야망, 공상,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시(Rashi)의 설명에 따르면, 인류가 다른 돌-식물-동물 세계의 피조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인간 내면에 심겨진 ‘신성한 호흡(divine breath)’ 때문이며, 이 신성한 호흡이 인간에게 도덕적 분별력과 영적 자각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은 개인 자신에게 속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조하르(Zohar)는 이러한 사상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조하르(Zohar)는 생각이 영혼의 가장 내밀한 의복이며, 언어와 행동이 솟아나는 뿌리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최악된 행동은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단계들을 거쳐 점진적으로 타락합니다. 먼저 생각이 품어지고, 그 다음 욕망이 형성되며, 이어서 이를 정당화하는 말이 시작되고, 마침내 행동이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타락은 이미 영적 유배의 시작인 셈입니다: 생각 → 욕망 → 언어 → 행동.

이러한 진행 과정은 비단 토라나 현인들의 가르침 속에서 뿐만 아니라, 케투빔(Ketuvim)의 모든 저술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5:27-28)에서 예호슈아(Yehoshua)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그분은 토라가 구분하는 생각과 행동 사이의 경계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최악된 행동이 솟아나는 더 깊은 뿌리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은 결코 고립된 채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내면세계가 외적인 범주를 위한 길을 미리 닦아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가르침은 내면의 ‘메일라(말려주신 거룩한 사명에 대한 신뢰의 배반)’에 대한 미드라시(Midrash)의 이해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즉, 거룩한 생각(思惟)의 기능이 자발적으로 불결함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 타락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1:14-15)에서는 죄를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구절의 언어는 조하르에서 묘사된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욕망은 외적으로 드러나기 훨씬 전에, 먼저 내면에서 잉태됩니다. 영적인 붕괴는 대중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욕망 → 죄 → 사망.

이와 비슷하게 로마서(12:2) 또한 단순히 행동의 개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갱신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므로 거룩함을 위한 전투의 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면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의지(意志)를 지휘하고, 그 의지가 궁극적으로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조하르는 생각이 천상 세계에 가장 가까운 영역에 존재한다고 자주 묘사합니다. 이 때문에 불순한 생각은 개인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영적인 분위기에도 해를 끼칩니다. 거룩함은 외적으로 드러나기 훨씬 전에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람반은 토라의 계명이 단순히 표면적 행동 규범이 아니라, 영적 내면의 삶을 정화하는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내면으로는 원한, 오만, 교만, 정욕, 잔인함, 완고한 반항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내면의 성소는 여전히 더럽혀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라가 여기서 특별히 우리의 권능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엘로힘에 대한 “배신”을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배신은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말려진 관계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지혜, 분별력, 기도, 토라 연구, 자비, 정의, 그리고 신성한 이름 여호와를 거룩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쓰이도록 인간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 신뢰를 받아 위탁 받은 것입니다. 이 거룩한 능력을 악한 상상에 사용하는 것은 신성한 에너지를 타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무사르(윤리적 도덕)의 학자들은 거룩함을 위한 싸움은 주로 생각 자체 안에서 벌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람비 이스라엘 살란터는 지각으로 제어되지 않은 생각이 결국 그 육신 내에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이 궁극적으로 그 온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복적으로 품게 되는 하나의 불순한 생각은 서서히

한 사람의 내면 세계 전체를 바꿔놓을수 있습니다. 이 자연 원칙은 고린도후서 10 장 5 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토라의 지식의 영에]순종하게 하라”는 말씀에서 되풀이됩니다. 이 구절은 “생각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각은 다스려지고 거룩하게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점차 사람 자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생각은 영혼을 상승시키며, 더 높은 경지로 고양시킵니다. 토라 말씀을 듣게 꿈 읊조리며 탐구하는 묵상, 감사, 자비, 여호와에 대한 경외, 그리고 단련된 영, 곧 자기 성찰은 점차 마음의 내면 성소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미드라쉬의 더 깊은 교훈은 단순히 악행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계시입니다. 마음은 거룩한 땅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성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마음을 부패로 채우는 사람은 내면의 메일라, 즉 자기 안에 위탁되어 있는 거룩한 그릇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라에서 회개(תשובה)가 단순히 행동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테슈바(תשובה) 회개)는 내면 세계 자체가 거룩함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시작됩니다.

shalom.